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5

동요하는 사람과 동요하지 않는 사람

지진 재해로부터 1 년이 지나서 핀 벚꽃을 신칸센 차창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 월에 서둘러 이사를 끝내고나서 2 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글에서는 후쿠시마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도 웬지 설레이는 감이 없다고 썼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후쿠시마현으로 돌아 온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디든 몸을 기대야만 하는 피난민이었습시다만 이곳에서는 지역전체의 주민이 피해자입니다.

이제까지 예가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신문을 훑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는 원전관련의 피해 정보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몸을 의지하며 가만히 고향의 행방을 주시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쩌면 풀숲에 몸을 웅크리고 제 집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고양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사 후로는 도쿄와 후쿠시마를 피스톤 왕복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한 개개인에게 알맞은 프라이버시의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이겠지요. 되돌아보면 일년이나 되는 장기간을 도쿄와 후쿠시마를 왕복하면서 공동 생활을 지속해 온 것에 대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횡수와 그 먼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끔찍한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서 일년 동안 살얼음 판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문득 시선을 돌리자 해안가를 따라 집집의 토대 흔적만이 남아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피해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결혼식장을 빌려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세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아파트는 어떻게든 완성되었지만 교회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첫번째 예배는 시내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렸고 두번째부터는 결혼식장으로 주일에 비어있는 방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랑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방랑자와 같이 떠도는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는 해도 연세드신 분들은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동요의 기색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과연 산전수전의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감탄하게 됩니다. 지진재해로 인한 방랑의 여정과 고통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찾아내셔서 그 기쁨을 한껏 누리려는 듯이 보입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오신 능률함과 안정된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수그러질 따름입니다. 교회의 보물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전국으로 흩어져버린 성도님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엄습해 옵니다. 가슴을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마를 날 없어 진창이 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몇 종류의 슬픔이 영긴 채로 밀려나오곤 해서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진 재해 대책만으로는 만만찮은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해로 할권 상처가 이렇도록 끈질기게 깊이 패어들어 번거롭게 하리라고는,,이제는 그만 이 아픔에서 놓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겠지요.

(4월 14일 토요일 오사카행 신칸센에서)

격동의 하루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돌아오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시다만 또 다른 일로 황망히 쫓기고 있습니다. 도쿄와 후쿠시마를 왕복하는 일은 없어졌습시다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위한 준비로써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과 도쿄에서 되돌아 오신 분들이 안착할 때까지 까다롭고 번잡한 수속 등에 쫓기고 있습니다.

원전사고에 따른 배상 수속이나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수속 절차 등도 제법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정은 멀기만 합니다. 다음 단계로 착지하기까지 중압감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서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로 돌아오면 조금은 여유롭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시다만 아무래도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른 아침 6시 전철을 타고 다카마츠(高松)로 가는 도중입니다. 아내는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을 뵈러 오늘 아침에 같이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막 출발하려고 할 때 네비게이터의 검색 루트에 고속 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 못 했던 아내가 어쩔수 없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을 보니 묘하게도 제가 격려를 받아 절박한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혼자 고속 도로를 운전했는지를 생각하면 못 할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면 된다 그 어떤 일이라도’, 저도 모르게 물 위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몰릴 수록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빌어 자신의 신조로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힘써 격려하지 않는다면 휩쓸려 떠나려가 순식간에 후퇴하게 될거라는 것을 직관하고 있기에 아직도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요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기업의 크리스천 회장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 회사는 일본에 진출해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일본에 보은했는가?’라고. 꿈에서 깨어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즉시 어떤 그리스도교 관계 단체에 거액의 기부를 하였고 지진 재해로부터 일년이 지난 올해 또 다시 일본의 부흥지원을 위해 헌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 체험과 저의 알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광대하시고 또한 세밀하게 자유자재로 일하시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셔서 주님의 뛰어나고 강한 팔로 먹구름으로 가득찬 이 세상과 저희들을 구원해주옵소서.

(4 월 25 일 수요일 이른 아침 다카마츠(高松)행 열차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차례 차례 끌어당겨 성실히 진행해 나가다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인간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가리워져있고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것들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 차근히 더듬어 나가다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혼란을 유발하는 요인도 됩니다.

이전에 본 영화 ‘알렉세이와 샘’은 체르노빌 원전사고후 방사능의 양이 굉장히 높은 어느 한촌에서 계절에 따른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열심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의 훈훈한 삶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몰려 든 사람들이 마치 판에 박은듯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방사능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두렵지 않은가?’ 등등 이러한 질문에 넋더리가 난 마을사람들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밖에 없는 소중한 하루를 벌벌떨며 사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생명을 한껏 살아가며 지저귀는 새소리와 꽃과 풀잎 하나 하나에 감동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쪽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반문했다는 후일담도 들었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채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된 작은 일 하나 하나를 포기하지 말고 내던지지 말고 영긴 실타래 끝을 조금 씩 풀어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곳 한복판에 서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속에서 속삭이는 악마를 느낄 때, 앞을 향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우고 이 혼돈의 세계를 신앙으로 헤쳐나갑시다.

(4 월 30 일 常磐線, 사토 아키라(佐藤 彰))